

'아스달 연대기' 초대형 판타지 세계가 열린다

tvN 6월 1일 밤 9시 첫방송

장동건·송중기

"상상하며 연기... 초유의 시도"

김지원·김옥빈

"지금 안 하면 다시는 못할 작품"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인가, 무모한 실험으로 남을 것인가.

올해 tvN 최대 프로젝트이자 새 주말극인 tvN '아스달 연대기' 첫방송이 나올 앞으로 다가왔다. 고대사 판타지라는 소재와 장르도, 초호화 캐스팅도, 막대한 제작비도 그야말로 '역대급'이다.

28일 열린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서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배우들은 저마다 작품의 남다른 상상력과, 초유의 시도라는 명분을 강조했다.

흔혈 이그트족 은섬으로 분한 배우 송중기(34)는 "상상하며 연기하는 부분이 필요했다. 그러나 후반부 컴퓨터그래픽 작업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제작진이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셔서 잘 연기할 수 있었다"라며 "현장에서 바로바로 소통하는 부분도 신선했다"라고 했다.

은섬과 대립할 아스달 부족연맹장의 장남 타곤 역의 장동건(47) 역시 "접해보지 않은 시대 얘기여서 상상력을 필요로 한 작품이었지만 작가들께서 워낙 새로운 세계를 견고하고 치밀하게 완성해 주셨다"라며 "심지어 등장 지역들은 실제 지도로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제작발표회에서는 극 중심을 끌어갈 송중기에 대해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의 눈까지 집중됐다. 2016년 최대 히트작 '태양의 후예' 이후 3년만의 드라마이자, 송해교와 결혼 후 복귀작이기도 해서다.

송중기는 "처음 작품 소개를 듣고 새로운 인종과 지도를 접했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뛰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가 연기할 은섬은 사람과 뇌안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이그트족으로, 함께 살아야 외환족들이 아스달에 끌려가자 그들을 구하려 거대 문명을 상대로 고군분투하는 인물이다.

송중기는 "김영현, 박상연 작가님은 7년 전 '뿌리 깊은 나무'에서 봤는데 제가 당시 아역이어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감동이 있었다. 이번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김원석 PD는 '성균관 스캔들'에서 만났다. 세 분 모두 다시 만나게 돼서 확신이 들었다. 흔쾌히, 또 자연스럽게 합류했다"라고 강조했다.



배우 송중기(왼쪽부터), 장동건, 김지원, 김옥빈이 28일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 깊은 나무'에서 봤는데 제가 당시 아역이어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감동이 있었다. 이번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김원석 PD는 '성균관 스캔들'에서 만났다. 세 분 모두 다시 만나게 돼서 확신이 들었다. 흔쾌히, 또 자연스럽게 합류했다"라고 강조했다.

송중기는 대작의 중심축이 된 데 대한 부담은 있다면서도 장동건, 김지원, 김옥빈 등 동료 배우들이 든든해 이겨냈다고 했다.

그는 또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며 "외신 글 중에 '한국영화인데 우리나라에도 있을 법한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한 것을 봤다"라며 "저희 드라마에 접목해봤다. 우리 드라마 역시 어느 시대에도 있을 법한 정치, 종교, 사회문제를 다룬다. 외국 시청자들에게 보실 때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외국 시청자들은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를 통해 '아스달 연대기'와 만나게 된다. 넷플릭스 역시 다음 달 1일부터 방송하며, 정확한 공개 시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김지원은 "대본을 보고 이게 실사화하면 어떨까 궁금했다"라며 "타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물이다. 이 시점에 이 작품에 출연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러한 작품을 못할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태양의 후예' 이후 다시 만난 송중기에 대해 "선배님은 대본을 봤을 때보다도 훨씬 은섬 같았다. 현장에서 호흡할 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재밌고 개구진 신(scene)이 많이 나왔다"라고 좋은 팀워크를 과시했다.

김옥빈 역시 "굉장히 특이한 대본"이라며 "쉽게 제작되는 드라마가 아니다. 지금 아니면 내가 언제 고조성 시대를 배경으로 연기하겠냐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작품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각 부족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가 속한 부족은 여자들이 세고, 또 어떤 부족은 가부장적"이라며 "원초적 욕망의 시대가기 때문에 인물끼리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 흥미롭다"라고 강조했다.

'아스달 연대기'에는 이밖에도 김의성, 조성하, 이도경, 박해준, 박병은 등 탄탄한 연기력을 자랑하는 조연이 함께한다.

연출은 '미생' (2014), '시그널' (2016), '나의 아저씨' (2018) 등으로 디테일한 연출력을 자랑한 김원석 PD가, 대본 집필은 '뿌리 깊은 나무' (2011), '육룡이 나르샤' (2015~2016)의 김영현·박상연 작가가 맡았다.

6회씩 총 3부로 구성됐으며 1·2부는 연말아서, 3부는 올 하반기 방송한다. 6월 1일 밤 9시 첫 방송. /연합뉴스

동방신기 유노윤호 데뷔 15년 만에 첫 솔로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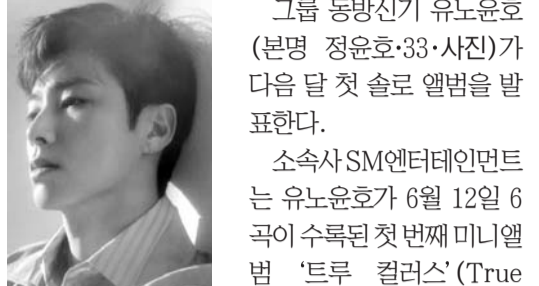


그림 동방신기 유노윤호 (본명 정윤호·33·사진)가 다음 달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가 6월 12일 6곡이 수록된 첫 번째 미니앨범 '트루 컬러스'(True Colors)를 발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앨범은 유노윤호가 2004년 동방신기 싱글 '히그'(Hug)로 데뷔한 지 15년 만에 처음 발표하는 솔로 앨범이다.

'트루 컬러스'란 앨범 제목에는 독보적인 음악 색깔과 퍼포먼스로 자신의 진정한 매력을 보여주겠다는 뜻이 담겼다.

유노윤호는 'K팝 제왕'으로 불린 동방신기 활동을 통해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또 솔로 앨범은 처음이지만 SM '스테이션' 시즌 2에서 공개된 '드롭'(DROP)과 동방신기 앨범 수록곡 '하니 파니 버니'(Honey Funny Bunny), '샴페인'(Champagne), '퍼즐'(Puzzle) 등 솔로 곡을 다수 선보였다.

유노윤호 앨범 예약 판매는 29일부터 온·오프라인 음반 매장에서 진행된다. /연합뉴스

'바람이 분다' 시청률 3.6%로 출발

지극히 현실적인 부부 이야기가 어떻게 멜로로 풀릴지 주목된다.

28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 방송한 JTBC 월화극 '바람이 분다' 첫 회 시청률은 3.598%(이하 비지상과 유료가구)를 기록했다.

첫 방송에서는 도훈(김우성 분)-수진(김하늘) 부부가 권태기를 맞아 서로 괴로워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김하늘 역시 김우성과 첫 호흡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안정된 모습이었다.

한편, 동시간대 방송한 tvN 월화극 '어비스'는 2.4% 시청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중 MBC 뉴스 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소
9	30 KBS 뉴스	00 여름이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볼밤(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 50 UHD 슈퍼(재) 55 KBS 창작동요대회 수상곡	00 단, 하나의 사랑(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내 친구 요리리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볼밤(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그날이 오면 <우리는 자주민이다>(재) 55 다큐 공감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5 나의 독립 영웅(재)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좌충우돌 만국 유랑기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30 구해줘! 홈즈 1~2부 스페셜	00 KBC특별기획 오월의 거짓말(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파파독 2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디큐	50 원손잡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여름이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볼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오늘밤 김제동	00 단, 하나의 사랑	05 살맛나는 세상	00 절대 그이
11	35 UHD 슈퍼 4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재)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재)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EBS 초대석
07:00 로보카 폴리	13:00 지식채널e
07:15 꼬마버스 타요	13:10 최고의 요리비결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40 꼬마버스 타요(재)
07:45 페파 피그	14:30 냥장고 나라, 코코몽
08:00 똥똥똥 유치원1~2	15:00 출동! 피자마 삼총사
08:30 몬카트	15:30 뽀롱뽀롱 뽀로로(재)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시즌4	15:45 출동! 슈퍼원스(재)
09:00 마사와 곰	16:00 최고다! 호기심딱지 시즌4(재)
09:30 원더볼즈	16:15 세미와 매직큐브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스페셜	16:30 똥똥똥 유치원1~2(재)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17:20 명탐정 피트
	17:30 페파 피그(재)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1~5
	19:00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형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갤럭시 프로젝트
	20:40 세계테마기행 <남만 동유럽 3부 마법 속으로 홀로리>
	21:30 한국기행 <섬마을 밥집 3부 그 섬에 맛의 고수가 산다>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극한직업
	23:55 EBS 초대석
	24:50 글로벌 특선다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9일 (음 4월 25일 丙寅)	
子	36년생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48년생 보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단도직입적으로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60년생 잘 되어 있으니 뚜껑만 열면 된다. 72년생 중요한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84년생 가치와 의미의 관점에서 기준 삼아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1, 77	午	42년생 시기가 아니라 완성도의 문제니라. 54년생 지켜보고 싶다면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66년생 축적해왔던 바가 자신을 지탱해주는 보루가 될 것이다. 78년생 느슨해진다면 곤란할 것이다. 90년생 상대에게 부담감을 줄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29, 66
丑	37년생 확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낫다. 49년생 회색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일보도 나아가기 어렵다. 61년생 제반 사정을 차치하고 일에 몰두하는 것이 옳다. 73년생 충분히 실력 발휘를 하고도 남음이 있다. 85년생 불굴의 투지로 임한다면 목적이 이룬다. 행운의 숫자 : 38, 01	未	43년생 정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55년생 새로운 위상을 여는 진면목이다. 67년생 힘들다고 하여 회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자. 79년생 아침의 상황이 저녁에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91년생 흡족한 결과로 인해 즐거우리라. 행운의 숫자 : 04, 52
寅	38년생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다. 50년생 확실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본다. 62년생 격리되거나 이동할 수도 있는 기운이 다분하다. 74년생 혼란스럽겠다. 86년생 징후가 나타나거든 즉시 초동 대응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74, 97	申	44년생 출산수면 한다면 자연히 따르게 되어 있느니라. 56년생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68년생 단 하나도 빠짐 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0년생 효과까지 예견하고 행동해야 한다. 92년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6, 72
卯	39년생 마음이 풀리어 쉽게 빠져들기에 충분하다. 51년생 실의를 우선하라. 63년생 현재의 괴로움은 미래의 기쁨이 될 것이니라. 75년생 새로운 시도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87년생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 행운의 숫자 : 73, 07	酉	45년생 갖추고 있어야 기회를 수용하게 된다. 57년생 예상 밖의 커다란 변수가 보이니 대비하라. 69년생 자신감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면 승산이 있다. 81년생 직접 처리했을 때 우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93년생 암초투성이의 운해로 진입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52, 93
辰	40년생 목적이 부합한다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보라. 52년생 거사를 도모할 수 있는 날이다. 64년생 마치고 나서야 근본적인 연유를 깨닫게 되리라. 76년생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하므로 주저하지 마라. 88년생 체면 차리려다가 심하게 꼬이는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55, 38	戌	34년생 보람찬 일들로 인해서 살맛나겠다. 46년생 어떠한 구조로 설정 되느냐가 문제니라. 58년생 사정을 헤아려서 모순되지 않게 처리 해야겠다. 70년생 구애어 남비를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82년생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익이 따를 수도 있는 하루다. 행운의 숫자 : 76, 19
巳	41년생 의도했던 바와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53년생 일상적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65년생 낙관하기에는 이르니 속단은 금물이다. 77년생 번거롭다고 해서 피하기만 한다면 해결 될 수 없느니라. 89년생 급히 선화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4, 42	亥	35년생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실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 47년생 굳이 내색할 필요까지는 없다. 59년생 근근과 배경을 파악해야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71년생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합당하다. 83년생 액땀하는 셈 치면 속 편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6, 9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